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 - 영국 핵무기 폐일 세이프 대화

2024년 10월 30일 영국 런던

회의 요약

개요

» 2024년 10월 30일,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ELN)-핵 위협 이니셔티브(NTI) 대표단은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ELN)이 주최한 반관반민 원탁회의에서 영국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만났다. 초점은 전적으로 폐일 세이프, 즉 핵무기의 무단, 우발적 사용 또는 실수로 인한 사용을 방지하는 폐일 세이프에 맞춰졌다.

» 목적은 내부적인 일방적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 및 조치를 논의하고, 양자 및 다자 (UN 상임이사국 포함) 논의와 이니셔티브의 의제로서 핵무기 폐일 세이프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이었다.

참석자 논의 사항

»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검토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독립적"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의 목적과 장점, 모든 핵보유국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 이러한 검토에 협상, 조약 또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결과나 조치의 공유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각 개별 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

» 현 중국 의장국 체제하에서 또는 2025년 8월 이후 후속 영국 의장국 체제하에서 N5/UN 상임이사국 형식으로 공통 폐일 세이프 이익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 전망.

» 영국의 현행 장기 지속적 폐일 세이프 검토 메커니즘에 관해 의회 및 기타 청중에 대해 영국 정부가 더 큰 개방성을 가졌다는 사실의 장점.

- 영국 관계자들은 더 큰 개방성이라는 아이디어에 신중하게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UN 상임이사국 형식의 행동에 회의적이었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미국식 "독립적 검토"에 반대했다. 그들은 영국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독립적 통합 내부 검토 메커니즘 외에도, 영국의 폐일 세이프 협정은 항상 미국에 의한 연례 독립 검토를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참석자 동의 사항

» 핵무기 페일 세이프는 모든 핵 보유국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방적 포지티브섬(positive sum)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

» "페일 세이프(fail-safe)"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비영어권 구성원들에게 중요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 용어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페일 세이프는 핵무기 또는 무기 체계가 고장 날 경우 안전하게 고장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용어는 실제적으로 핵무기의 무단 사용, 우발적 사용 또는 실수로 인한 사용을 방지하는 안전 조치를 의미한다.

» 모든 핵보유국의 내부적인 일방적 핵무기 페일 세이프 검토는 안전 및 위험 감소를 위한 귀중한 도구이다. 이러한 검토는 현역 관계자뿐 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경험이 있는 퇴역 국가 핵 과학자, 군 관계자, 민간 국방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과 같은 독립적 검토도 정부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 하에 수행될 것이다.

» 모든 핵보유국은 자국 고유의 핵 태세, 정책 및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의 핵무기 페일 세이프 검토 과정도 고유한 범위와 초점을 가질 것이다. 영국 관계자들은 영국의 상황이 미국과 상당히 다르며 상당히 다른 핵무기 페일 세이프 검토 과정을 정당화한다고 강하게 느꼈다. 미국의 핵무기 체계는 수가 많고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영국은 "최소 억지력"이라는 단 하나의 핵무기 체계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핵무기 체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페일 세이프 검토 메커니즘이 없는 반면, 영국은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확립된 정기적이고 반독립적이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페일 세이프 검토 과정을 가지고 있다.¹ 또한 영국의 페일 세이프 체계는 1958년 미국-영국 상호방위협정 조항에 따라 매년 미국이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영국 관계자들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러한 체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미국식의 보다 독립적인 검토가 검토자 자체를 검토하고 추가적 보장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추가 노력이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가마다 검토 절차의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검토가 포괄적일수록 더 바람직하다. 핵무기 페일 세이프 검토는 핵 정책 및 전력 태세, 절차, 지휘통제 프로세스 및 시스템, 핵무기 및 운반 체계의 설계를 포함한다. 영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과 그 이상의 내용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영국의 검토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고 암시했으나 (비기밀 수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핵무기 페일 세이프는 지금 더욱 시급하다. 대부분의 핵보유국에서 핵 현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신기술, 조기경보, 지휘통제, 핵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 중 일부는 재래식 전력과 얽혀 있음),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AI)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¹ 영국의 페일 세이프 검토 체계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공개 설명은 영국 국방부 전 국방참모차장보(핵·화학·생물) 직책으로 영국 핵 억지력을 감독했던 존 고워(John Gower) 퇴역 해군 소장이 2016년 BASIC 웹사이트 블로그 게시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나는 영국 핵 억지력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시스템, 인프라, 작전 및 프로세스의 전반적 취약성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담당했다. 모니터링, 감사, 전망 스캔 및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전략시스템 성능평가 분석 그룹(SSPAG)이 나를 위해 일했다. 분명히 그들의 일상적 핵심 업무인 세부 작업과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 문서에 부적절한 자료이지만, 나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혁신적이며 정책적 명령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확신했고 지금도 확신한다. 안주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세부 사항에 대한 그들의 부지런한 주의를 전략시스템 성능평가 분석 그룹(SSPAG)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광범위한 전문성의 범위—분석적, 과학적, 운영적—를 반영했다. 따라서 세부 사항을 정량화할 수는 분명히 없지만,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모든 취약성 요소가 식별되고 분석되며 보고된다고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이 지도자들의 핵 결정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다. 핵무기 폐일 세이프 조치는 의사결정 시간을 늘리고, 사고·오판 또는 치명적 실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줄여야만 한다.

» 미국은 핵무기 폐일 세이프와 관련해 두 차례 수행한 독립적 검토(1990~1992년 검토 및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검토)에서 얻은 경험을 유용하게 공유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공유할 것이다. 그러나 2024년 10월 현재까지 미국 행정부가 안전장치에 관해 영국 정부에 접촉한 적은 없다.

» 핵무기 폐일 세이프는 N5/UN 상임이사국 간 대화 주제로 적절할 것이다. 단, UN 상임이사국 국가 중 어느 국가도 폐일 세이프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오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영국 관계자들은 용어, 원칙 및 모범 사례에 관한 UN 상임이사국 용어집을 만드는 것의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 영국 정부가 자국의 폐일 세이프 메커니즘의 존재와 운영에 대해 개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개방성은 의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유익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정부 장관들도 검토 메커니즘에 대해 영국 의회에 아무 발언도 할 수 없다.

결론

» 런던 회담은 어떤 부분에서 진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에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단기적으로 입장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한 첫 단계는 의회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거나 UN 상임이사국 체제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일 수 있다. 범위의 포괄성, 검토의 정기성, 그리고 아마도 내부 검토의 독립성 측면에서 영국은 매우 훌륭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